韓國營養學會誌 : 第 19 卷 · 第 1 號 · 1986
Korean J. Nutr. Vol. 19, No. 1, 1986

家庭環境이 靑少年期 食事의 質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硏究

임 국 이 · 김 선 효

대전실업전문대학 식품영양과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the Dietary Quality of Adolescence

Kook Yi Yim and Sun Hyo Kim

Dept. of Food & Nutrition, Daejeon Junior College

= ABSTRACT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the dietary quality of adolescence. The subjects were 390 girls aged from 13 to 19 and their mothers in Chung-Nam province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il 6 to 16, 1985.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ean dietary score of nutrient adequacy of subjects was 11.85 out of possible 17, which showed that all nutrients intake might be lower than the R.D.A.

2) According to resident place, dietary quality was tended to be better in order of rural place, small city and medium city ($P < 0.01$).

3) In smaller numbers of family members, dietary quality was tended to be better ($P<0.01$).

4) Family pattern did not affect the dietary quality.

5)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dietary quality was tended to be better at the upper class ($P < 0.05$).

6) Dietary quality was tended to be better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PCEF (per capita expenditure for food).

7) Mother's employment was likely to improve the dietary quality ($P < 0.01$).

8) Dietary quality was tended to be better according to mother's favored attitude toward nutrition ($P < 0.01$).

9) Mother's attitude toward taste affected the dietary quality, but this effect was not constant ($P < 0.01$).

10) Mother's attitude toward family's food preference affected the dietary quality adversely ($P < 0.01$).

11) Mother's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was likely to affect the dietary quality.

12) Dietary qua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health status of subjec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dietary quality and menarcheal age ($P < 0.01$).

접수일자 : 1986년 1월 21일

緖 論

最近 全世界的으로 靑少年期 營養에 대한 관심이 高潮되고 있다.

靑少年期는 成長과 成熟이 加速的으로 이루어지고 活動量이 많은 시기로, 이 시기에 영양소 요구량이 상당히 증가함은 周知된 사실이다[1)-3)].

身長 증가는 女子가 9～12歲, 男子가 11～15歲, 體重의 增加는 女子가 10～14歲, 男子가 11～18 歲 때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 營養不良으로 인하여 發育이 일단 지연되면 회복시키기가 어려우므로, 最大의 成長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영양을 공급함은 매우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4)5)].

그러나, 先行硏究에서 靑少年들은 그들의 成長 및 健康에 나쁜 영향을 줄 만큼 不良한 食事를 하고 있고貧血, 食欲不振, 齲齒 등의 영양 문제를 수반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2)3)5)-16)].

個人의 食事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는 가치관, 외모에 대한 관심도, 형제 순위, 연령,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 관계, 가족과 식사의 공유도, 母의 식생활관리 능력 및 영양 지식 등이 보고되었다[6)8)9)14)-24)].

따라서 個人의 食事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自身에 依한 內的要因과 家庭環境의 外的要因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個人의 食事가 家庭을 中心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家庭環境이 食事의 質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는 것은 매우 意義 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靑少年을 대상으로 실시한 硏究로 營養섭취 상태[14)], 영양 섭취 실태와 성장 발육[12)], 성장 발육 및 체격 지수[25)], 식습관[6)], 식품 기호도[26)] 등에 관한 硏究가 있으나, 家庭環境의 諸要因이 靑少年期 食事의 質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한 資料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연구는 家庭環境이 靑少年期 食事의 質에 미치는 영향을 調査 分析함으로써, 靑少年期 營養敎育을 위한 基礎資料로 제공함과 동시에, 地域社會의 營養改善에도 도움이 되게하고자 실시하였다.

硏 究 方 法

1) 調査對象

忠南地域에 거주하는 13～19歲의 女子中高等學生中 390名을 임의 추출하여 학생에게는 설문지 A型을, 동일 대상 학생의 어머니에게는 설문지 B型을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2) 調査期間

(1) 豫備調査 : 1985 年 1月 30日～1月 31日.

(2) 本調査 : 1985年 2月 6日～2月 16日.

3) 調査方法 및 內容

설문지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 설문지 A型 : 학생이 기입하도록 했다.

① 食事의 質 調査 : 24시간 상기법에 의해 이틀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재료를 기입하도록 했다.

② 自身의 健康狀態 및 初經年齡 調査 :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한다〉～〈아주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의 5단계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아 평가하도록 했고, 초경 연령을 기입하도록 했다.

(2) 설문지 B型 : 어머니가 기입하도록 했다.

① 가정 환경 조사 : 가족수, 가족 형태, 월 수입, 월 식생활비, 父와 母의 교육 수준 및 가장의 직업을 기입하도록 했다.

②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태도 조사 : 식사 준비시 고려 사항에 대해 해당란에 표시하도록 했다.

③ 어머니의 영양 지식 조사 : 어머니의 영양 지식 조사를 위해 Table 1과 같은 문항에 대해 〈확실히 옳

Table 1. The questions for nutrition knowledge test

① 우유는 칼슘의 좋은 급원 식품이다.
②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80～90%가 적당하다.
③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영양소이다.
④ 미역,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다.
⑤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란 좋아하는 식품만을 충분량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⑥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린다.
⑦ 버섯, 효모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다.
⑧ 사춘기 소년은 소녀보다 더 많은 양의 철분을 필요로 한다.
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식품은 없다.
⑩ 성인 여성은 사춘기 소녀보다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한다.
⑪ 비타민, 무기질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이다.

Table 2. Score of parents'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and father's occupation

Education level(school)		Monthly income(won)	Occupation	Score
Father	Mother			
Not educated	〃	Below 200,000	Laborer, Sweeper, Domestic servant, Coachman, Peddler, etc.	1
Primary	〃	200,000– 350,000	Performer, Service man, Tenant-farming, Crew, Clerk, etc.	2
Middle	〃	350,000– 500,000	Dress maker, Haircutter, Nurse, Technical expert, Small owner cultivator, etc.	3
High	〃	500,000– 600,000	Clergy man, Writer, Artist, Judicial scrivener, Large owner cultivator, etc.	4
Undergraduate	〃	600,000– 800,000	Pharmacist, Pilot, Captain, Revenue officer, Doctor of chinese medicine, etc.	5
Graduate	〃	Above 800,000	Professor, Doctor, Lawyer, Judge, Financier, etc.	6

다〉~〈전혀 옳지 않다〉의 5단계로 응답하도록 했고, 이어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영양지식 정도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의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지식의 자아 평가를 조사하였다.

4) 資料 處理方法

(1) 食事의 質 評價 : 조사 대상자들이 이틀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재료를 Guthrie등의[28]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로 환산하여, 이를 식사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로 삼았다.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1일 다섯 가지 기초 식품군별 섭취 횟수에 각 식품군별로 할당된 점수를 곱한후 합산하여 구하였다.

이 방법이 식사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식사의 질을 간단하면서도 타당성 있게 평가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되어 사용하였다.

(2) 家庭의 社會經濟的 地位 : 父의 교육 수준, 母의 교육 수준, 가장의 직업 및 월 수입의 4가지 지표를 Table 2과 같이 각각 6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로 1~6점을 주도록 하였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분류는, 각 지표의 합계가 18~24점일 때 상류층, 11~17점일 때 중류층, 4~10점일 때 하류층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의 분류 기준은 홍[2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em		N	%
Resident place	Daejeon city	130	33.33
	Kongju city	130	33.34
	Cheongyang kun	130	33.33
	Total	390	100
Family size (persons)	Below 5	92	23.59
	6 – 7	183	46.92
	Above 8	115	29.49
	Total	390	100
Family pattern	Nuclear	279	71.54
	Elongated	111	28.46
	Total	390	100

(3) 어머니의 영양 지식 점수 : 문항중 긍정으로된문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옳다〉의 응답에 5점, 〈옳다〉 4점, 〈옳을 지도 모른다〉 3점, 〈옳지 않다〉 2점, 〈전혀 옳지 않다〉 1점으로 하였고, 부정으로 된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옳지 않다〉의 응답에 5점, 〈옳지 않다〉 4점, 〈옳을 지도 모른다〉 3점, 〈옳다〉 2점, 〈전혀 옳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영양 지식 점수를 구하였

다.

(4) 가정 환경의 제 요인이 식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F-test에 의하고 식사의 질과 건강 상태 및 초경 연령과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에 의해 분석 하였다[29].

結果 및 考察

1) 一般環境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 가족수 및 가족 제도는 Table 3와 같으며, 월 평균 수입은 30만원 이하가 51.52% 30~55만원이 37.69%, 65만원 이상이 10.77%로 비교적 경제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부의 경우 52.30%가 고졸 이상, 모의 경우는 43.84%가 중졸 이상이었다.

2) 食事의 質

Guthrie등[28]의 방법에 의한 조사 대상자의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Table 4과 같다.

매식사에서 다섯 가지 기초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때 얻을 수 있는 17점 만점에서 조사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11.85 점 이었다.

Guthrie등[28]은 유지류를 제외한 네 가지 기초 식품군의 가능한 점수인 16점을 얻었을 때 대부분의 영양소가 권장량을 충족시키나, 10~11점으로 떨어지면 비타민 A, B_1, folic acid 및 Mg 등의 영양소가 권장량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 17점 만점의 평가 방법에서 조사 대상자의 평균 점수가 11.85점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 소녀의 대다수가 질적으로불량한 식사를 하고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김[7], Sidwell 등[11], 이등[12], 이등[13], 이등[14]과 Hinton등[15]의 보고와 일치했다.

3) 家庭環境과 食事의 質

(1) 居住地와 食事의 質

본 연구에서 중도시로 대전시, 소도시로 공주시, 농촌 지역으로 청양군을 선정해, 거주지가 식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청양군, 공주시, 대전시의 순으로 높아져, 도시 지역일수록 질적으로 양호한 식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P < 0.01$) (Table 4).

(2) 家族數와 食事의 質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수가 3인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이었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등[13], 정등[17], Eppright 등[23]의 보고와 일치했으며, 가족수가 가정의 식생활비를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볼 때, 가족수가 적을수록 1인

Table 4. Dietary score of nutrient adequacy of subjects

Score	N	%
5	2	0.51
6	4	1.02
7	9	2.31
8	16	4.10
9	34	8.72
10	43	11.03
11	46	11.80
12	49	12.56
13	77	19.74
14	43	11.03
15	37	9.49
16	19	4.87
17	11	2.82
Total	390	100

Table 5. Resident place and mean dietary score of nutrient adequacy

Resident place	N	M	S.D.	F value
Daejeon city	130	12.88	3.02	1.74**
Kongju city	130	12.14	2.31	
Cheongyang kun	130	10.43	2.29	
Total	390	11.85	2.16	

** $P < 0.01$

Table 6. Family size and mean dietary score of nutrient adequacy

Family size(persons)	N	M	S.D.	F value
Below 3	3	11.50	3.04	13.36**
4 - 5	89	12.43	2.33	
6 - 7	183	11.79	2.44	
8 - 9	80	11.53	2.43	
Above 10	35	11.29	2.52	
Total	390	11.85	2.16	

** $P < 0.01$

당 식생활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家族形態와 食事의 質

핵가족, 확대가족의 가족 형태는 식사의 질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社會經濟的 地位와 食事의 質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높아졌다($P < 0.05$).

본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수준을 결정짓는 지표로 부의 교육 수준, 모의 교육 수준, 가장의 직업 및 월 수입의 지표를 사용했던 바, 각 지표가 학령전 아동, 학동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2)13)15)19)22)30)-32)] 조사 대상자의 영양 섭취 수준에 영향을 미쳤듯이 이들 지표를 통합했을 때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가족의 식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6)33)].

(5) 一人當 食生活費와 食事의 質

조사 대상자의 1 인당 식생활비는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00～25,000원이 55.38%로 가장 많았고, 1 人當 食生活費가 增加할수록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이[20)]는 1人當 食生活費가 增加할수록 어린이의 영양소 섭취량이 增加하고, Graham등[31)]은 주식의 섭취량은 빈화가 없으나, 육류, 지방, 우유,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Graham등[32)]은 1人當 食生活費가 增加할 때 아동의 성장 발육이 양호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6) 어머니의 社會參與 程度와 食事의 質

Table 8과 같이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가 비취업의 경우보다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었다($P < 0.01$).

(7) 어머니의 食生活管理 態度와 食事의 質

① 營養에 對한 考慮度와 食事의 質

식사준비시 영양에 대한 고려도가 높을수록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이었다($P < 0.01$)(Table 9).

이[20)]는 식사 준비시 어머니가 영양을 고려할수록 어린이의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Eppright등[23)]은 어머니의 영양에 대한 태도와 아동의 식사의 질간에 유의적인 正의 相關關係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② 맛에 對한 考慮度와 食事의 質

食事準備시 맛에 對한 考慮度는 일관성은 없었으나,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에 影響을 미쳤다($P < 0.01$)(Table 10).

③食品 購入時 價格에 對한 考慮度와 食事의 質

食品 購入時 價格에 對한 考慮度는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에 유의적인 影響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7. Socioeconomic status and mean dietary score of nutrient adequacy

Class	N	M	S.D.	F value
Upper	25	14.26	1.96	6.86*
Medium	209	12.32	2.31	
Lower	156	10.83	2.05	
Total	390	11.85	2.16	

* $P < 0.05$

Table 8. Distribution of per capita expenditure for food (PCEF) of subjects

PCEF (won)	N	%
Below 10,000	28	7.18
10,000– 25,000	216	55.38
25,000– 35,000	79	20.26
35,000– 45,000	34	8.72
Above 45,000	33	8.46
Total	390	100

Table 9. Mother's employment and mean dietary score of nutrient adequacy

Employment	N	M	S.D.	F value
Full time	48	12.48	2.58	224.5**
2–3 days/week	6	12.92	1.36	
Participation in social meeting	114	12.46	2.89	
Not	222	11.41	2.06	
Total	390	11.85	2.16	

** $P < 0.01$

Table 10. Consideration degnee of nutrition, taste, family's food preference and mean dietary score of nutrient adequacy

Consideration degree	Nutrition			Taste			Food preference		
	N	M	S.D.	N	M	S.D.	N	M	S.D.
Very much	33	13.06	2.24	184	11.84	2.55	187	11.89	2.30
Much	178	12.15	2.68	164	12.02	1.83	161	11.91	2.52
Fair	111	11.60	2.65	35	11.74	2.75	33	11.24	2.87
Scarcely	59	10.86	2.27	5	11.80	1.86	6	12.27	3.74
Not	9	11.50	2.47	2	12.50	3.54	3	12.83	2.59
Total	390	11.85	2.16	390	11.85	2.16	390	11.85	2.16
F Value		43.44**			22.24**			156.81**	

** P <0.01

Table 11. Mother's nutrition knowledge score and mean dietary score of nutrient

Score	N	M	S.D.	F value
29–34	54	9.31	3.74	2.74
35–39	120	11.28	3.36	
40–44	130	12.30	3.51	
45–49	69	12.43	3.53	
50–55	17	12.18	3.49	
Total	390	11.85	2.16	

④ 家族의 健康과 營養에 對한 考慮度와 食事의 質

食事 準備時 家族의 健康과 營養에 對한 考慮度가 높을수록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던 바, 이는 현 등[18], *Caliendo* 등[21]과 *Eppright* 등[34]의 보고와 일치했다.

⑤ 調理의 簡便性에 對한 考慮度와 食事의 質

調理의 簡便性에 對한 考慮度는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⑥ 族家의 食性에 對한 考慮度와 食事의 質

식사 준비시 어머니가 가족의 식성을 고려할수록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었다(P <0.01) (Table 10).

중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등[35]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주부들은 식사준비시 가족 전체, 남편, 자녀, 시부모, 주부 자신의 순으로 가족의 식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Distribution of menarcheal age of subjects

Age	N	%
12	7	1.79
13	53	13.59
14	145	37.18
15	133	34.10
16	43	11.03
17	6	1.54
18	3	0.77
Total	390	100

(8) 어머니의 營養知識과 食事의 質

① 營養知識의 自我評價와 食事의 質

어머니가 자신의 영양 지식을 높이 평가할수록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② 營養知識 點數와 食事의 質

55점 만점에서 조사 대상자의 평균 영양 지식 점수는 40.5점으로 상당히 양호한 지식 수준을 보여주었고 영양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이었다(Table 11).

김등[36], 모[37]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 때 영양 지식 점수가 높고, 김[7], 최[38], 김[39]은 어머니의 영양 지식 점수와 자녀의 식사의 질 및 식습관간에는 正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사춘기 소년 소녀와 유치원 보모를 대상으로 실

시한 김[7]과 최[38]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영양 지식을 얻는 인적인 급원으로 어머니를 지적했던 바, 어머니의 영양 지식은 자녀의 영양 지식, 식습관 및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4) 食事의 質과 靑少年의 健康狀態 및 初經年齡과의 關係

(1) 食事의 質과 健康狀態와의 關係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와 건강 상태의 자아 평가도간에는 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바 ($r = 0.003$), 식사의 질이 증진될수록 자신의 건강 상태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2) 初經年齡과 食事의 質

초경 연령은 유전, 기후, 사회 문화적수준, 영양 등의 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40][41].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초경 연령은 Table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18세에 분포되어 있으며, 14세가 37.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5세(34.10%), 13세(13.59%), 16세(11.03%)의 순이었다.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와 초경 연령간에는 유의적인 負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바 ($r = -0.35$, $P < 0.01$), 식사의 질이 증진될수록 초경 연령은 빨라지는 경향이었다.

要 約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평균 식품 섭취 균형도 점수는 17점 만점에서 11.85점으로, 대부분의 영양소가 권장량에 미달되는 불량한 식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2) 중도시, 소도시, 농촌 지역의 순으로 식사의 질이 양호한 경향이었다($P < 0.01$).

3) 가족수가 적을수록 식사의 질이 양호했다($P < 0.01$)

4) 가족형태는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식사의 질이 양호했다($P < 0.05$).

6) 1인당 식생활비가 증가할수록 식사의 질은 양호해지는 경향이었다.

7)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비취업의 경우보다 식사의 질이 양호했다($P < 0.01$).

8) 식사 준비시 어머니가 영양을 고려할수록 식사의 질이 양호해졌다($P < 0.01$).

9) 맛에 대한 고려도는 일관성은 없었으나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P < 0.01$).

10) 식품 구입시 가격, 조리의 간편성 및 가족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고려도는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1) 가족의 식성을 고려할수록 식사의 질은 저하되는 경향이었다($P < 0.01$).

12) 어머니의 영양 지식 점수 및 영양 지식의 자아 평가도가 높을수록 식사의 질은 양호해지는 경향이었다.

13) 식사의 질과 청소년의 건강 상태와는 正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식사의 질과 초경 연령간에는 유의적인 負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이상에서 가정 환경 요인은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식사의 질은 청소년의 건강 상태 및 초경 연령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1) 원재희 · 유영희 : 특수영양학, *pp. 166-169*, 수학사, 서울, *1985*.

2) 구재옥 · 모수미 · 이정원 · 최혜미 : 특수영양학, *pp. 237-265*,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서울, *1983*.

3) Wilson, E.D., Fisher, K.H. & Garcia, P.A. : *Principles of Nutrition, pp. 446-450, Wiley, New York.*

4) 박일화 · 김숙희 · 모수미 : 영양원리와 식이요법, *pp. 155-161*, 이화여대 출판부, 서울, *1981*.

5) 김천호 : 특수영양학, *pp. 183-185*, 수학사, 서울, *1983*.

6) 정경해 : 대전시 사춘기 여학생의 식습관 조사. 가정학연구, 창간호, *pp. 70-90*, 충남대 가정교육과, *1985*.

7) 김성애 : *A Nutrition Survey of Korean Adolescents Living in Los Angeles, California. K.J.N.S., 15(1) : 54-61, 1982.*

8) Macdonald, L.A., Wearring, G.A. & Moase, O. : *Factors Affecting the Dietary Quality of Adolescent Girls. J. Am. Diete. Assn., 82(3) : 260-263, 1983.*

9) Spindler, E.B. & Acker, G. : *Teen-Agers Tell us about their Nutrition. J. Am. Dietet. Assn., 43 (3) : 228-231, 1963.*

10) Edward, C.H., Hogan, G., Spahr, S. & Guilford County Nutrition Committee : *Nutrition Survey of 6200 Teen-Age Youth. J. Am. Dietet. Assn., 45(6) : 543-546, 1964.*

11) Sidwell, V. D. & Eppright, E.S. : *Food Habits*

of Iowa Children-Breakfast. J. Home Economics, 45(6) : 401-405, 1953.

12) 이현옥 · 김숙희 : 고등학생의 영양섭취실태와 성장발육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6(3) : 27-36, 1973.*

13) 이일하 · 이미애 : 서울 시내 여자중학생들의 성장발육과 영양섭취실태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5(1) : 37-48, 1983.*

14) 이혜수 · 임공희 : 고등학생의 도시락에 의한 영양섭취 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6(1) : 39-46, 1973.*

15) Hinton, M.A., Eppright, E.S., Chadderson, H. & Wolins, L. : *Eating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Girls 12 to 14 years old. J. Am. Dietet. Assn., 43(3) : 223–227, 1963.*

16) Spindler, E.B. : *Motivating Teen–Agers to Improve Nutrition. J. Home Economics, 55(1) : 28–32, 1963.*

17) 정혜경 · 김숙희 : 한국의 도시 빈곤지역과 농촌의 영양섭취 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5(4) : 290–300, 1982.*

18) 현화진 · 모수미 : 일부 고소득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어린이의 성장발육 및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6(4) : 253–262, 1983.*

19) 김기남 : 식습관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5(1) : 194– 201, 1982.*

20) 이청원 : 어린이의 생활환경이 영양섭취 실태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21) Caliendo, M.A., Sanjar, D., Wright, J. & Cummings, C. : *Nutritional Status of Preschool Children. J. Am. Dietet. Assn., 71(1) : 20–26, 1974.*

22) Sims, L.S. & Morris, P.M. : *Nutritional Status Preschoolers. J. Am. Dietet. Assn., 64(5) : 492–499, 1974.*

23) Eppright, E.S., Fox, H. M., Fryer, B.A., Lamkin, G.H. & Vivan, V.M. : *Nutriti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Mothers. J. Home Economics, 62(5) : 327–337, 1970.*

24) Allen, D.E., Patterson, Z.A. & Warren, G.L. : *Nutrition, Family Commens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J. Home Economics, 62(5) : 333–337, 1970.*

25) 박양원 · 이병갑 · 박순영 : 일부 도시지역의 중고생의 성장발육 및 체격지수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4) : 29–38, 1971.*

26) 염초애 · 장명숙 · 김동희 · 황재희 : 한국 여자중학생의 식습관과 식품기호에 관한 조사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3 : 97–123, 1984.*

27) 홍두승 : 한국 사회 계층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이만갑교수 회갑기념논총, *p. 180, 1983.*

28) Guthrie, H.A. & Scheer, J.C. : *Validity of a Dietary Score for Assessing Nutrient Adequacy. J. Am. Dietet. Assn., 78(2) : 240–245, 1981.*

29) 임인재 : 통계방법, *pp.314–318,* 박영사, 서울, *1983.*

30) 이민지 : 삼척지역 임산부 및 신생아 영양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1.*

31) Graham, G.G., Creed, H.M., MacLean, W.C., Rabold, J. & Mellits, E.D. : *Determinants of Growth among Poor Children : Effect of Expenditure for Food on Nutrient Sources. Am. J. Clin. Nutr., 34(4) : 562–567, 1981.*

32) Graham, G.G., Creed, H.M., MacLean, W.C., Rabold, J., Kallman, C.H. & Mellits, D. : *Determinants of Growth among Poor Children : Relation of Nutrient Intakes to Expenditure for Food. J. Am. Clin. Nutr., 34(4) : 556–561, 1981.*

33) 이현옥 : 한국인 성인 여자의 식품기호와 식품 섭취량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22(4) : 49–57, 1984.*

34) Eppright, E.S. & Swanson, P.P. : *Distribution of Nutrients among Meals and Snacks of Iowa School Children. J. Am. Dietet. Assn., 31 : 250–260, 1955.*

35) 임국이 · 김정자 : 식생활관리 및 영양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주부를 중심으로. 대전실전 · 중경공전 논문집, 제 *12*집, *pp.545–559, 1983.*

36) 김기남 · 모수미 : 자녀의 식습관 육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9(1) : 25-42, 1976.*

37) 모수미 . 한국 여성의 식습관과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8 : 159-174, 1969.*

38) 최운정 : 유치원 보모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5(3) : 181-185, 1982.*
39) 김화영 :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3) : 178-184, 1984.*
40) 전찬화 : 초경연령에 관한 조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1) : 79-93, 1960.*
41) 최병순 : 중고교생들의 월경에 관한 조사 연구 : 경기도 양주지역을 중심으로. 삼육대학 논문집, 제 *9* 집, *pp. 251-257, 1978.*